

자녀가 그림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요.

어떻게 하면
그림책 읽기를
즐거워 할 수 있을까요?



**책을 좋아하지 않는 영유아도,
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.**



책을 먼저 찾지 않는다고 해서 배움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.

영유아는 놀이, 움직임, 대화 등
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.

**책을 읽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
부모의 역할은 이미 충분합니다.**



부모의 제안에 즐겁게 응하고 집중한다면,
영유아는 이미 책에 대한
긍정적인 기억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.

스스로 책을 찾는 시기는 영유아마다 다릅니다.



어떤 영유아는 책과 친해지는데
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비교보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.

활발하게 놀이하는 영유아는 지금 '몸으로 배우는 중'입니다.



낮 동안 활발히 움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영유아는
지금 책보다 몸으로 세상을 익히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.
이 또한 자연스러운 발달의 모습입니다.

책은 '습관'이 아니라 '관계'에서 시작됩니다.



억지로 읽히기보다
짧게, 가볍게,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이
영유아가 책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.

**지금은
'잘 읽게 만드는 시기'가 아니라
'좋아하게 만드는 시기'입니다.**



스스로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
영유아에게 남는 것은 책의 양이나 횟수가 아니라,
부모와 함께했던 편안하고 즐거웠던 기억입니다.